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등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박필수
편집장	김재환
외대신문사 (☎ 4962-7128, 4965-7001)	
외대학보 (☎ 4965-7048, 4965-700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화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 513 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89년 4월 11일 (화요일)

잠든 외대혼을 깨워라 정론의 징소리여!



◇사진:한성원 기자

이어짐을 위한 끊임없는 진전

창간사

이어간다. 함은 점점이 닥쳐 오는 역경을 이기고 나아감을 말한다. 하여 이어감은 대립물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얻어내는 과정이요, 때문에 고통의 과정이기도하다. 그것이 사람의 고민과 힘씀으로 만들어지는 신문일때 그의미는 배(倍)를 더하지 않겠는가.

그를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알리기 위해 대나무의 끈을 이어온지 34년.

우리의 역사가 부정과 억눌림으로 이름 붙여진 절곡의 연속이었기에 그 끈음의 이어짐은 우리에게 덧 씌워진 껍질을 깨기 위한 고통을, 그리하여 트헤넨 뜨거운 고민으로 글쓰기를 요구했다.

여기, 무엇이 진리이고 누가 주인공자를 모르는 철학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순결한 한반도에 외세의 지배가 시작된지 1세기를 헤아리기가 먼지 않은 지금, 그의 대리 세력임이 분명한 독재자의 폭압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목을 조여 오고 있으며 이들의 손아귀에서 돌아나는 현언론의 작태는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한다.

제도언론에 비추어지는 우리의 현실은 구기어지고 왜곡되어 더이상 우리의것이 아니다. 매일 빈틈없이 곳곳에 뿌려지는 활자의 배열은 우리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우리를 예측의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눈과 귀를 때앗아간 강도이며, 그래서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들은, 이제 더이상 우리에게 언론이 아니다.

하여 외대학보는 민족의 자주권을 틀어쥐고 조국의 이어짐을 가로막는 외세에 대한 분노에 찬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며, 때앗긴 생존권을 돌려받고자 거리를 메우는 근로대중의 요구를 부여 안을 것이다. 이렇듯 민족을 억누르는 외세와 독재를 향해 양심과 사상으로 다듬어진 축창으로, 칼끝으로 원고를 메워갈 것이다.

이제, 민족자주언론의 선봉이고자 피로써 지켜온 대학언론에, 바람에 물린 지배자들의 반동적 폭압이 그 추악한 손을 뻗친다해도 하나의 활자마다 자주·민주·통일을 새긴다는 각오로 외대학보를, 자주언론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것은 「후퇴는 끊어짐이요 전진만이 이어짐」이라는 외대학보 34년역사의 진리가, 누런 갯지속에 서 필필 뛰는 청맥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창간특집호 면소개〉

- | | |
|----------------------------------|---|
| 1면:화보, 창간사 | 7면:특집 II - 권언유학의 효시, 동아일보 |
| 2면:논론-문학사상학을 계기로 본 89년 통일운동 전개방향 | 8면:특집 III 좌담-집히는 신문으로 전락한 대학신문 탈바꿈해야 한다 |
| 3면:보도기사 | 9면:논론-민족극본 정립배경과 임무 |
| 4면:시리즈(7)-조국통일운동의 전진과 전망제로의 접근 | 10면:보도기획-원천자주화 실현을 위한 제언(1) |
| 5면:주제인터뷰-인학당은 불경기가 아닙니다 | 11면:기획기사-새롭게 단장한 중앙도서관 |
| 6면:특집 I - 조선일보의 70년 국필사 | 12면:공트-3월에 내리는 눈 |

國際化 시대에 앞서가는 大學校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